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영광을 주님께만 (시편 115:1-18)

Giving glory only to God (Psalms 115:1-18)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본시를 승리의 찬송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이 좌절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한 시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절망과 좌절에서의 호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이 시의 주된 사상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Most commentators do not regard this poem as a psalm of victory, but explain that Israelites made an appeal for God's help while they were frustrated and in despair. The main idea, however, is trusting in God rather than appealing for God's help.

1.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1-8절)

이 기도에는 세 가지 요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 ①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 ②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 ③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주의 이름이 열방으로부터 조소를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1. Prayers for God's glory (w. 1-8)

There are three essential points connoted in the prayers.

- (1) Help us, so that the glory will not go to human beings, but to God!
- (2) We pray that the glory must be only to God!
- (3) We pray, O Lord, that Your name would not be mocked by the nations, because you have saved us, your people.

시인의 이와 같은 기도는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신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It is very appropriate to say that psalmists' prayers are similar to the points mentioned above. Gentile people could not understand why we worship a God who has not been seen by us. It is deeply meaningful that God prevents us from making any image, when we worship Him. God is the everlasting God, not to be compared with any images. If we substitute the seen creation for God, worshippers would be misled by it. Therefore, the second commandment must be emphasized to prevent our understanding of God from being deteriorated by idolatry.

보이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예배자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저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2계명이 강조된 것입니다.

2. 여호와를 의지하라(9-11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9-11절은 예배드리는 일과 함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것입니다.

2. Trust in the Lord (w. 9-11)

What are the things that God's people must do? We must worship. And in verses 9-11, the Bible says that His people should trust in the Lord while worshipping Him, because He is our help and our shield. Idols are incapable of doing anything, and are completely powerless.

3. 여호와와 그의 복(12-13절)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집,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9-11절),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12-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3. The Lord's blessings (w. 12-13)

If we trust in the Lord, we cannot be in despair. He is living and trustworthy; He gives good things to those who look for Him; He loves those who believe in Him and obey Him. The Bible says, "O house of Israel, O house of Aaron, and those who fear the Lord, trust in the Lord" (verses 5-11), and He blesses them (verses 12-13). He blesses those who fear the Lord, no matter how small and great they are.

4. 여호와를 송축하라(14-18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무슨 응답을 해야 합니까?

- 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 ②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4. Extol the Lord (w. 14-18)

God is the Almighty God, in whom we must trust. How do we repay him?

- (1) Be faithful stewards!
- (2) Praise the Lord continuousl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천이라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영적 승리를 하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ongregation!

If we are Christians, we must praise the Lord who is living. By having spiritual victory in the world, I hope that you and I will praise the Lord both now and forevermore in the name of Jesus!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John Calvin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1주 앞으로

6월21일(주) 오후 5시 - 기념예배(칼빈 예배 형식 따라)

6시 - 기념음악회 - 본당

6월22일(월) 오전 10시 - 칼빈공로상 수여 및 학술행사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대회가 한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요한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운 목사)는 이번 대회를 은혜롭게 진행하고 분열된 한국의 장로교회가 다시 하나되는 초석으로 삼기 위해 계속된 기도 속에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각 신학교에 홍보하기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였고 각 교단에 초대장을 발송 완료하였다.

이번 기념대회는 2일간 계속되는데 첫날인 6월21일(주)은 오후 5시에 서울교회 본당에서 칼빈이 제시한 예배 형태에 따라 예배를 드린 후 6시에 기념음악회를 연이어 갖는다. 기념음악회에는 한국의 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한국예총종합학교)와 바리톤 최현수 교수(한

국예총종합학교)와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둘째 날인 22일(월)은 오전 10시 개회예배 후 칼빈공로상 수여를 하고 오전11시에 주제강연(이종운 목사, Paul Wells 목사)이 있고 오후 1시에는 7개 분과로 나뉘어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 때 각 분과별 좌장은 신학대학교의 전현직 총장들이 담당하게 된다.

이 날의 학술심포지엄은 신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요한 칼빈의 신학과 사상, 그 영향 등을 총 집대성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깊은 기도가 요청된다.

학습 세례 관련 규정 개정

우리교회는 새가족부내에 '학습 세례 통신준비반'을 신설함에 따라 그 일을 담당할 조직의 규정 및 업무처리 지침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된 서울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서울교회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예배위원회)

5. 성례시행지침

가. 자격 :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학습, 세례, 입교, 개종 (이하 성례라 한다) 문답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문답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준비교육을 수료(이수)하여야 한다.

1) 학습문답

본 교회에 등록된 14세 이상이 되고, 소정의 준비교육을 수료(이수)한 사람으로서 신앙이 독실한 사람

2) 세례문답

본 교회의 학습 교인으로 학습예식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본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근심히 교회에 출석한 신앙이 독실한 사람.

단, 가족과 본인이 회망하고 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관계없이 병상 세례를 받을 수 있다.

4) 입교문답

유아세례를 받은 15세 이상 된 사람.

다. 준비교육

3) 준비교육은 당회가 주관하고 새가족부 및 각 교회학교(대학, 청년부 포함, 이하 같음)에, 외국인의 경우 영어예배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4)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새가족부는 학습 세례통신준비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5) 각 교회학교의 준비교육 과정 및 내용은 피 위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교육자료는 새가족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사용한다.

6) 학습인 경우에는 새가족부, 학습통신준비반 등 준비 교육을 수료(이수)하면 학습 문답에 임할 수 있다.

라. 시행시기

당회는 매 짝수 월 셋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성례 문답을 시행하며 서약 예식은 수요일 I II부 예배 시에 시행한다.

마. 신청접수

성례문답 신청 접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요령

가. 해당 성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양식(소정 양식)에 의하여 해당 교구 또는 각 교회학교 교역자의 확인을 거쳐 접수한다. 담당교역자는 신청자의 교회출석, 등록, 신앙, 교육 등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날인(사인)한다.

나. 성례식 일주일 전, 해당 월 둘째 주일까지 새가족부에 제출한다.

바. 문답

본 교회 문답은 성례문답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문답위원: 각 교구 지도목사와 장로로 하며 지도목사는 신청자의 교적확인 등 점검 관리를 한다.

아. 자료관리

성례가 끝난 후 모든 자료는 사무국에서 취합, 관리하며 멀티미디어실에서 전산 입력 처리한다.

자. 신청서 양식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18조(성례부)

교회의 성례전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당회의 지시에 따른다.

가. 성찬예식

권사회, 예배위원회 및 제직회의 예배부와 협력하여 준비한다.

나. 학습, 세례식

새가족부와 협력하여 준비한다.

제19조 상조부

로잔국제지도자대회 은혜 중에 폐회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종운 목사가 주최하고 서울교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가 후원한 로잔국제지도자대회가 은혜 중에 지난 12일(금) 모든 공식일정을 마쳤다. 서울로

잔국제지도자대회 60여개 국의 로잔지도자들은 우리교회에서 드린 개회예배와 환영만찬을 마친 후 장신대로 이동하여 장신대에서 열린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가하며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을 체험하는 한편 각종 그룹회의를 통해 내년 3차 세계로잔대회 준비를 논의하였다. 한국로잔위원회의는 이번 대회를 마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이번 대회를 성공

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촬영팀)

은혜 중에 건너는 「홍해작전」

16일(화)부터 이종운 목사 강사로

교회학교 - 오늘 홍해작전 백일장, 그리기 대회 개최

지난 6월6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2009년 홍해작전에 참가한 성도들이 은혜 중에 홍해를 건너고 있다. 박노철 목사(구리지구총교회)는 내일까지 새벽강단을 인도하고 16일(화)부터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가 계속하여 인도한다.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이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제도나 사상, 주의도 아닌 우리 성도들의 기도만이 위

기에 빠진 이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다. 6.25 전쟁이 발발한 25일까지 20일 동안 계속되는 홍해작전에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성도들의 발길이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한편 우리교회 교회학교는 오늘 교회학교 교육실과 한티공원 등에서 홍해작전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서울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선교사 추가 파송

곽찬희 · 유주희 선교사 - 동아시아로

1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기도하며 진력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지난 6월4일(목) 면접을 실시하여 곽찬희 목사와 유주희 선생을 동아시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였다.

곽찬희 목사(72년 8월 11일 생)는 충북대 철학과를 졸업(B.A)하고 장신대 신대원(M. Div.)을 졸업한 후 미국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Th. M.),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Ph. D.)를 마치고 일산승리교회 부목사로 목회도 하였다. 부인 유주희 선생(72년 5월 9일 생)은 상명여대 일어교육과를 졸업하였다.

추가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현재 공석 중인 동아시아 지역 00 신학원에서 후진을 양성하게 된다.



홍해작전

은혜의 강단, 말씀의 폭포수



2009년 홍해작전, 새벽을 가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오는 이들에게 말씀의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다.

15일까지 전 반부 강사로 서신 박노철 목사님은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오는 말씀으로 홍해작전

첫 날을 여셨다.

박 목사님은 3일 동안 성령을 주제로 "성령의 능력은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강력한 다이내믹, 두나미스로 이 힘을 받은 사람은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열정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초청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박 목사님은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일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망으로 전도하자'는 홍해작전 표어를 말씀으로 쏘개시며 9, 10일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 앞에 멈춰 서셨고, 만져 주셨고, 치유시켜 주셨고, 회복시키셨다. 나를 위해서는 철저히 절제하며 빈약한 자를 위한 아가페 타운에 온 힘을 쏟아 붓는 서울교회의 헌신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사역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어 11일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성도가 마땅히 행해

야 할 일이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시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강력히 선포하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 안에서 꿈꾸는 자는 아름답고, 꿈꾸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시는 박노철 목사님의 주옥같은 말씀은 내일까지 이어지며 16일부터는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이 십자가 군사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게 된다.

당신은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가?

허숙 권사(편집부)



홍해작전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소윤경 성도 (12교구)

저는 어려서부터 겁이 많은 탓에 자전거도 못타고 수영도 할 줄 몰랐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사주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밀어주며 잡아주는 부모를 믿고 페달을 돌리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 하다가 어느새 혼자서 타고 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평지를 달릴 때는 자전거가 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오르막을 만나면 자전거를 내가 끌고 가야 합니다.

좋은 부모님 덕분에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오면서도 홍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안주시고 힘든 일만 주시는지 원망했습니다.

저도 아쉽게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야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한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그리고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24살의 어린 나이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암세포가 같이 자라서 아이는 유산했고 저는 항암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일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남편도 내 곁에 없습니다.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야 합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 것은 그 분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고요합니다.

만나와 구름기둥의 고마움을 모르고 불평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광야 길을 헤매고 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는 있고 세상의 잣대로 구하기만 했던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 더 큰 홍해가 나를 가로막더라도 결코 주님께서 날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날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며 인자한 귀로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수길 목사
(7,8교구담임)**



6월 21일(주일)에 <칼빈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우리 서울교회에서 칼빈이 제시한 예배 형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기념음악회를 가짐으로써 그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해온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칼빈에 대해 배웠을 때의 감동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 위해 바치기를 결단하는 칼빈의 저 유명한 고백, "cor meum tibi offero domine, prompte et sincere"(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에 매료되어 교과서 곳곳에 적어두고 칼빈의 열정을 품고자 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칼빈 탄생 500주년이 되는 이 뜻 깊은 해에 우리 서울교회가 기념행사를 주관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다시 한 번 칼빈의 개혁사상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 대표회장이신 이종윤 위임목사님께서 이미 밝히신 것처럼, 이번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는 일과성 집회나 행사가 아

니라 조용한 학문적인 성찰을 통해 칼빈이 개혁한 장로교의 본질을 찾음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지난 5월 12일(화)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정에서 기념사업회 명의로 제작된 <칼빈 흉상 제막식>을 가지셨습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장로교신학자의 날' 선포와 프랑스 신학자들이 한국 장로교 각 신학대학 총장들께 '기독교 강요 새번역판을 기증'하는 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6월 22일(월)에 우리 서울교회에서 열리는 <학술 심포지엄>에는 이종윤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국내 저명 학자들이 칼빈공로상을 수상하고, 주제는 문 2편 발표를 비롯하여 7개 분과에서 70편의 논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칼빈의 생일인 7월 10일은 <한국장로교의 날>로 선포되어 모든 장로교단이 장총체육관에서 모여 칼빈을 재조명하며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귀한 기념대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장 통합 · 합동 노회 연석 간담회
18일(목) 서울교회에서**

한국 장로교회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합동 총과 통합 총 양 교단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수도노회(합동 총)와 서울강남노회(통합 총) 임원 및 증경노회장 각각 20명씩 40명이 우리교회에서 18일(목) 양 교단이 분열된 후 첫 모임을 갖는다.

장로교의 날 대회를 준비하면서 두 교단의 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이종윤 목사의 초청형식으로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칼빈5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 연합의 이정표를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자.

태신자 명단

-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상숙(김정숙) 조정란(이내경 임정민) 조경아(강종희 이복의) 정병무(김영자 이정훈) 이채봉(김민준 박상우 배진우 안정현 이지원) 이찬호(성정란 이민지 최진수 최진욱 최철규) 이민숙(백종희) *괄호 앞의 이름은 기도자입니다. (다음 주 계속)

동정

■ 이종윤 목사는 6월15일(월) 칼빈500주년기념사업회 임원회, 17일(수) 장로교의 날 대회 임원회 및 분과위원장 모임, 18일(목) 수도노회(합동 총)와 서울강남노회(통합 총) 연석임원회, 19일(금) 장로교회 총회장, 총무 연석회의를 각각 소집한다.

- 특남 10교구 최승순 집사 김영선 성도 가정
- 이사 : (3교구)원용범 집사 김영희 권사 가정 서초구 서초동 1420-18 신원아침도시@ 102-1301 (4교구)권현택 성도, 박현숙 성도 서초구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100동 506호(070-7543-7269) (10교구)박래원 집사, 조봉환 권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초월e-편한세상 아파트 201-505호 (11교구)안홍희 집사, 전화진 집사 가정, 송파구 문정동 문정래미안아파트 124동 1501호 (11교구)최상균 집사, 박혜선 집사 가정, 강남구 역삼2동 역삼래미안아파트 111동 902호 (12교구)김광신 장로, 이인선 권사 가정,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동보4차아파트 101-903호 TEL. 031)8004-8119

- 주간식당 봉사: 엘리야교회(6.14) 모세(6.21)
- 금주의 식사: 김훈 집사 김혜아 집사 가정 (어머니 이옥녀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 일 예 배 | I 부 오전 9시 |
| | II 부 오전 11시 20분 |
| | III 부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 일 오후 5시 |
| 영 어 예 배 | 주 일 오전 11시 20분 |
| 수 요 예 배 | I 부 오전 11시 |
| | II 부 오후 7시 |
| 금 요 기도 회 | 오후 8시 30분 |
| 새 벽 기도 회 | 오전 5시 30분 |

**전도학교, 기도학교, 행복한 소그룹학교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전도양육훈련을 위하여 지난 3월에 시작한 각 과정이 13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지게 된다.

전도학교는 13주 동안 교실강의와 한티공원 노방전도 및 아파트 축호전도 실습을 통하여 전도의 이론과 실재를 체험하고 전도자로서 무장받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학교**는 기도의 첫 단계부터 깊은 영적 경험의 세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기도의 형태와 유형을 소개받고 경험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거쳐 도교기도자로 무장하는 과정을 거쳤다. **행복한 소그룹학교**는 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인 다락방의 가치와 비전, 원리를 이해하고 진정한 크리스찬 소그룹의 실재를 체험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가진 전도중심적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훈련을 받았다. 각 과정의 다음 훈련은 9월 첫주 서울성경대학 개강에 맞춰 시작된다.

한편, 행복한 소그룹학교 제 2기는 소그룹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10개 다락방을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 받았으며, 9월과정에 참여하게 될 다락방은

다음과 같다.

<행복한 소그룹 2기 (가을학기) 참여할 다락방 >
01-27 03-12 03-20 11-05 11-08 13-05 13-11 13-23 13-29 16-16

<전도학교 36기 수료자 명단 (9명)>
김애순 고경순 신은숙 제오복 허경화 안성희 손지희 이은유 권수정

<기도학교 3기 수료자 명단 (16명)>
김병순 김병애 김수진 김은주 박미경 서은영 신명희 양옥희 윤계진 이은정 이재무 전광환 정명숙 최향숙 함정희 한명자

<행복한 소그룹 학교 1기 수료자 (39명)>
3-15(강영자 윤종희 이경실 이동구 이은희 장인숙) 3-24(송영빈 이소연 정선경) 9-7(김홍주 박이선 안성희 유묘종 이선주) 15-4(김영란 이은미 이인보 인계선 정부순 조소량) 13-10(김필임 서영선 양호경) 13-13(김윤희 박옥 윤현미 허주란) 13-14(김미중 김숙영 문금희 백정숙 유명옥 이영미 최향봉 홍건표) 14-13(석상화) 15-16(김경현 남현주 박종녀)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말씀과 기도로 흥해를 가르는 흥해자전 위하여
3. 칼빈탄생500주년기념대회, 장로교의 날 행사준비 위하여
4.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5.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